

 <b>자본시장연구원</b>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<b>보도자료</b>	보고서명	<b>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채 토큰화: 글로벌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</b>
	문의	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(02-3771-0631, pkkim@kcmi.re.kr)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640, jungghy0103@kcmi.re.kr)

-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로 토큰화(tokenization)가 부상
  - 토큰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 상에 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·기록하는 과정을 의미
  - 토큰화를 통해 실물경제 자산(Real World Asset: RWA)을 토큰으로 거래 가능할 수 있어 디지털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
  
- 토큰화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거래와 자본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
  -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거래가 구현 가능
  - 조합가능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일련의 금융거래를 통합 처리 가능
  - 원자적 결제를 통해 결제 과정이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짐
  
- 토큰화의 규모 자체는 아직 크지 않지만 매우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
  - '25.9월말 기준 전체 토큰자산 규모는 2년 전에 비해 4.1배 성장
  - 최근 채권, 펀드,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
  
- 현대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채는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국채토큰의 형태로 그 기능을 이어갈 전망
  - 무위험금리의 기준점 역할, 담보증권으로의 높은 활용도 등 국채의 기능과 역할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필수적
  - 국채토큰 시장의 효율적인 조성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

- (국채토큰 발행) 발행 당국의 주도로 국채토큰을 발행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며, 단기간 내에 국채 발행이 토큰 형태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  - 이는 토큰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
  - 그렇지만 채권토큰 시범 프로젝트의 확산으로 관련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되면서 국채토큰 발행 기반이 점차 강화될 전망
  
- (국채 투자 펀드 토큰화) 국채를 주요 투자자산으로 하는 펀드의 토큰화를 통해서도 국채가 토큰화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
  - 국채토큰과 같이 국채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토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펀드의 투자자산이 대부분 국채라는 점에서 국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
  - 글로벌 토큰화 펀드의 대부분이 토큰화 MMF인데, 이들 MMF는 주로 미국 시장에서 자산을 단기 국채로 운용
  - 토큰화 MMF는 사실상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해 자금관리의 유연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담보증권으로의 사용도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크게 제고
  
- 국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큰화 시스템 도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
  - 토큰화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구축
  - 국채 토큰화와 관련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디지털 금융 전환을 도모
  - 한편, 국내 금융기관들도 토큰화 전환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강화하고 DLT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모색할 필요